

#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순희<sup>1</sup> · 이선희<sup>2</sup>

경북대학교 간호학과<sup>1</sup>, 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The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im, Soonhee<sup>1</sup> · Lee, Sunhee<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eungjin College, Daegu,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had an influence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47 nursing students in D city.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 19.0 using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happiness included major satisfaction (highly unsatisfied  $\beta = -.251, p = .001$ ),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between four and six million won  $\beta = .222, p = .002$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beta = .198, p = .010$ ),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beta = .196, p = .006$ ), and subjective health (unhealthy  $\beta = -.167, p = .020$ ). These factors explained 33.5% of the variance in student happines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were important intrinsic factors in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Thus, it is necessary to help these students attain more self-efficacy,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rather than focusing on academic achiev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ir happiness.

**Key Words:** Happiness, Stress, Self-esteem, Self-efficacy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개

인의 행복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고등교육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위이나 행복지수, 출산율은 최하위이며, 자살률은 최상위로 평가되었다[1].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보다 교사나 부모의 익숙한 지시나 타율에

**주요어:** 행복감,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건강, 전공만족도

**Corresponding author:** Lee Sunhe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Yeungjin College, 35 Bokhyeon-ro, Buk-gu, Daegu 702-721, Korea.  
Tel: +82-53-940-5439, Fax: +82-53-940-5438, E-mail: heeeya7613@hanmail.net

**Received:** Nov 11, 2014 / **Revised:** Feb 12, 2015 / **Accepted:** Feb 13,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을 해왔고 이에 따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2].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학시절 동안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업 달성과 환경적 변화에 대응해 스스로 책임있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성인으로 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3]. 또한 전 세계적인 불황과 한국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져 통계청의 201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9세 청년실업률은 8.4%로[4], 높은 고등교육 수준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전공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 동료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건강상태를 겪고 있다[5].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것은 취업 스트레스로 취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6,10], 졸업과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신입생 시절부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6].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는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여 안정된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6]. 대학생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 및 불행 관련 사건을 조사한 선행연구[7]에서도 불행 관련 사건으로 '취업에 대해 걱정'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들과 같은 취업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반 대학생들 보다 많고, 엄격한 교육과정과 위계 질서, 과중한 학습량,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실습수행, 환자 간호에 대한 책임감, 간호사로서 직업관과 가치관 확립 등의 학업 스트레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8].

또한 간호대학생은 이러한 스트레스 및 동료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신체증상뿐만 아니라 절망감, 허무감, 우울감, 소외감, 고독감 등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건강상태를 경험한다[6,9,11]. 이는 정서적 갈등, 정체감 상실, 내적 혼란[11]을 야기하고 결국 주관적 안녕감인 행복감은 감소하여[7], 개인적인 삶은 물론 사회부적응과 같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0]. 또한 넓은 의미의 안녕인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대상자의 돌봄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2]. 간호학에서 인본주의적·이타주의적 가치체계는 인간의 성숙한 삶을 이끌어주는 질적 차원에 대한 철학이며, 자아확장과 배움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감과 그러한 행위를 추구하는 헌신에 관한 것이므로[13] 간호대학

생들이 행복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행복감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인성적 자질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1].

행복연구학회지(JH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에 게재된 125편의 행복감에 대한 국외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15]에 따르면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좋은 삶에 관한 이론적 반영과 주관적 웰빙, 행복감과 관련된 철학적인 부분에서, 행복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은 행복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이 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개인적으로 행복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어 왔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적 자원으로 감사성향, 자아존중감[11], 진료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10]이었고, 일반대학생은 외적 자원으로 경제수준[5,17-19], 대인관계[5,11], 취업 스트레스[6] 등이었다.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행복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대학생들은 취업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영역별 목표는 더 충족되고 목표를 이를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15] 이상의 요소들은 행복감과 단편적인 관계의 결과들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행복감에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은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낙관성, 내외통제성, 학업성취도, 경제적 수준, 대인관계로 집약된다.

이처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행복감에 관련 있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고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행복감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취업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수준인 외적 자원과 내적 자원을 포함하면서 간호대학생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중재방안을 제공하여 간호대학생이 돌봄 제공자로서 훌륭한 돌봄 자세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요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스트레스 관리, 학교적응 및 행

복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와 행복감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행복감과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D광역시 소재한 학사과정 1곳과 전문학사과정 1곳의 간호학과 2곳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질문지의 내용과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참여하고자 수락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표본 수는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98%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138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확증적 연구가 아닌 탐색적 연구로  $\beta$ 오류가 크면 표본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power를 높이고 표본크기를 커지게 하고자  $\beta$ 오류를 작게 설정해 표본 수를 산정하였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66부를 배부하였고 152부가 수거되었다(회수율=92%). 이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47부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표본수 147명은 연구결과를 신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학 휴학생, 제적생 등 대학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 대학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자, 외국 유학생, 외국 교환학생, 간호대학 특성상 취업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간호학과 1, 2학년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Kang[20]이 요인분석을 통해 22문항(5점 Likert 척도)으로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취업 스트레스는 성격 스트레스(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5문항), 학업 스트레스(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4문항), 취업불안 스트레스(3문항)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선행연구[20]에서 총 취업 스트레스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2이었고 성격 스트레스는 .85,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88, 학업 스트레스는 .80,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79, 취업불안 스트레스는 .78로 모두 .70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2)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료결정을 위해 행해야 하는 진료발달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측정한 것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21]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22]를 활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직업정보수집, 자기평가,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요인으로 구분되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료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2]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8~.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 3) 학업성취도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대학생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로 삼았고, 대부분의 대학생 학업성취도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평점평균을 대학생 학업성취도로 보았다.

#### 4) 자아존중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elf-esteem Scale[23]을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자아존중감 척도[24]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정·보완된 후 저작권과 관계없이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된 것으로 긍정문항 5문항, 역문

항 5문항으로 총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으로 평가되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4]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5) 행복감

본 연구는 대학생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25]를 한국어판으로 번역한 도구[2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감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당 1점에서 7점으로 평가되는 7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 분포는 7점부터 28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6]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78이었다.

####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K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IRB No. 2014-0064) 승인된 내용 및 절차에 준하여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의 대학 2곳의 대학생을 편의표출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19일까지 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직접 본 연구에 대해 이해하여 참여를 수락한 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 5. 윤리적 고려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서 연구목적과 내용 그리고 취지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거부, 중단할 수 있음과 참여자의 자료는 부호화하여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연구대상자는 이러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목적에 이해해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와 행복감은 t-test, ANOVA,  $\chi^2$  test로 분석하였다.
- 행복감과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는 Person's correlation 분석을 이용하였다.
- 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유무를 분석한 후 단계선택법(stepwise)을 이용한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는 총 147명으로 연령은 20대가 130명(88.5%)이고 30대가 17명(11.5%)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134명(91.2%), 남학생이 13명(8.8%)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57명(38.8%), 4학년이 90명(61.2%)이었다. 가구 내 평균 월수입은 200만원에서 400만원 미만인 66명(44.9%), 200만원 미만이 32명(21.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37명(25.2%), 600만원 이상이 12명(8.2%)이었다. 졸업 후 원하는 진로방향은 취업이 139명(94.6%)이었고 대학원 진학이 8명(5.4%)이었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지와 계획이 91명(61.9%), 순수 실력이 35명(23.8%), 인맥과 배경이 10명(6.8%), 학교지명도가 11명(7.5%)이었다. 취업고민 시 불안을 공유하는 경우가 123명(83.7%)이었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24명(16.3%)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136명(92.6%), 불건강이 11명(7.4%)이었다. 대인관계는 보통 이상이 144명(98%), 전공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71명(48.3%), 보통이 61명(41.5%), 불만족 이하가 15명(10.2%)이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와 행복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 $t=-2.205, p=.029$ ), 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7)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Age (year)	20~24	17 (11.6)
	25~29	113 (76.9)
	30~34	8 (5.4)
	≥35	9 (6.1)
Gender	Male	13 (8.8)
	Female	134 (91.2)
Grade	Junior	57 (38.8)
	Senior	90 (61.2)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 200	32 (21.8)
	200~< 400	66 (44.9)
	400~< 600	37 (25.2)
	≥ 600	12 (8.2)
Course direction	Employment	139 (94.6)
	Graduate school advancement	8 (5.4)
Influence on job	Ability	35 (23.8)
	Volition and plan	91 (61.9)
	Personal relations	10 (6.8)
	Prestige school	11 (7.5)
Job worries	Sharing	123 (83.7)
	Alone	24 (16.3)
Subjective health	Excellent	17 (11.6)
	Good	61 (41.5)
	Fair	58 (39.5)
	Poor	11 (7.4)
Personal relations	Excellent	20 (13.6)
	Good	80 (54.4)
	Fair	44 (29.9)
	Poor	3 (2.0)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8 (5.4)
	Satisfied	63 (42.9)
	Fairly satisfied	61 (41.5)
	Unsatisfied	9 (6.1)
	Very unsatisfied	6 (4.1)

구 내 평균 월수입( $F=2.975, p=.034$ ), 주관적 건강상태( $F=4.533, p=.005$ ), 대인관계( $F=5.547,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 $t=2.428, p=.016$ ), 대인관계( $t=3.594, p=.015$ ), 전공만족도( $t=5.091, p=.001$ )에서, 자아존중감은 학년( $t=3.930, p=.019$ ), 가구 내 평균 월수입( $t=3.134, p=.028$ ), 주관적 건강상태( $t=4.060, p=.008$ ), 대인관계( $t=6.922,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는 학년( $t=4.873, p=.029$ ), 대인관계( $t=5.397, p=.002$ ), 전공만족도( $t=2.920, p=.023$ )에서, 행복감은 가구 내 평균 월수입( $t=3.500, p=.017$ ), 취업영향( $t=2.814, p=.041$ ),

취업고민( $t=5.716, p=.018$ ), 주관적 건강상태( $t=5.900, p=.001$ ), 대인관계( $t=5.119, p=.002$ ), 전공만족도( $t=12.265,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 3.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취업 스트레스는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327, p<.001, r=-.334, p<.001, r=-.198, p=.016$ ).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r=-.217, p=.008, r=-.324, p<.001$ ),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370, p<.001$ ). 학업성취도는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r=.046, p=.576, r=.029, p=.724, r=-.015, p=.754, r=.029, p=.724$ )(Table 3).

### 4. 대상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와 일반적 특성에서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고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산팽창인자(VIF)는 1.06에서 1.26이고, Durbin-Watson값은 2.164로 다중공선성이나 잔차들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전공만족도, 가구 내 평균 월수입,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에 비해 불만족하는 경우( $\beta=-.251, p=.003$ ), 주관적 건강에서 매우 건강에 비해 건강하지 않는 경우( $\beta=-.167, p=.020$ ), 가구 내 평균 월수입이 600만 이상보다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인 경우( $\beta=.222, p=.002$ ),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beta=-.251, p=.003$ ),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보다 만족하는 경우( $\beta=-.251, p=.003$ )가 대상자의 행복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변인들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는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 )는 .335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3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2.** Differences of Outcome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Job-Seeking Stress		CDMSE		Self-esteem		Study Achievement		Happin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year)	20~24	59.82±15.53	.548 (.650)	81.76±7.81	2.495 (.065)	30.00±3.84	.342 (.795)	3.06±0.83	2.54 (.059)	17.71±3.39	1.958 (.123)
	25~29	55.30±14.61		89.60±12.16		30.89±4.72		3.65±0.82		19.19±3.91	
	30~34	58.00±16.19		86.38±9.49		29.88±6.08		3.75±0.89		17.25±3.15	
	≥35	57.44±11.92		90.89±10.18		30.00±4.09		3.56±1.01		17.00±3.78	
Gender	Male	47.69±16.26	-2.205 (.029)	96.00±15.06	2.428 (.016)	30.15±6.23	-.326 (.749)	3.38±0.65	.739 (.392)	20.77±6.06	1.281 (.223)
	Female	56.92±14.22		87.88±11.14		30.73±4.48		3.60±0.87		18.58±3.54	
Grade	Junior	57.00±14.20	.351 (.554)	86.33±11.60	3.550 (.062)	29.74±4.36	3.93 (.049)	3.39±0.84	4.873 (.029)	18.49±4.17	.506 (.478)
	Senior	55.53±14.88		90.03±11.60		31.28±4.74		3.70±0.84		18.96±3.65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200	60.69±15.10	2.975 (.034)	84.41±9.98	2.148 (.097)	29.13±4.29	3.134 (.028)	3.66±0.79	1.445 (.232)	17.59±4.81	3.500 (.017)
	200~<400	57.32±12.32		89.18±10.59		30.36±4.83		3.42±0.86		18.42±4.21	
	400~<600	51.62±15.02		91.32±13.62		32.35±3.75		3.70±0.91		20.38±3.39	
	≥600	51.00±14.60		88.17±13.75		31.42±5.68		3.83±0.72		18.92±3.50	
Course direction	Employment	55.74±14.34	1.570 (.212)	88.27±11.69	2.077 (.152)	30.70±4.68	.036 (.849)	3.55±0.86	3.550 (.062)	18.69±3.85	1.242 (.267)
	Graduate school advancement	62.38±18.39		94.38±11.05		30.38±4.17		4.13±0.35		20.25±3.92	
Influence on job	Ability	57.89±16.68	.383 (.765)	88.94±10.14	.835 (.447)	29.97±4.64	1.340 (.246)	3.31±0.83	1.916 (.130)	17.37±3.05	2.814 (.041)
	Volution and plan	55.11±13.87		88.03±12.23		31.01±4.69		3.70±0.80		19.33±3.94	
	Personal relations	56.70±18.80		94.00±13.10		28.70±4.88		3.50±0.97		17.60±5.32	
	Prestige school	58.09±9.38		87.27±10.75		32.00±3.61		3.45±1.13		19.73±2.83	
Job worries	Sharing	55.76±14.37	.402 (.527)	89.24±11.34	2.25 (.136)	30.81±4.63	.615 (.434)	3.56±0.85	.308 (.580)	19.11±3.72	5.716 (.018)
	Alone	57.83±15.86		85.33±13.20		30.00±4.71		3.67±0.87		17.08±4.13	
Subjective health	Excellent	46.12±17.25	4.533 (.005)	94.88±13.60	2.389 (.071)	33.12±5.97	4.060 (.008)	3.47±0.80	.711 (.547)	21.00±5.14	5.90 (.001)
	Good	55.46±13.32		88.39±10.98		30.95±4.52		3.69±0.81		19.28±2.39	
	Fair	58.16±13.60		86.59±12.03		30.34±4.15		3.53±0.88		18.22±4.10	
	Poor	64.27±15.58		90.64±7.76		27.18±3.43		3.36±1.02		15.45±4.48	
Personal relations	Excellent	49.35±16.99	5.547 (.001)	94.55±13.31	3.594 (.015)	32.30±6.93	6.922 (<.001)	3.80±0.83	5.397 (.002)	21.30±4.76	5.119 (.002)
	Good	54.66±13.95		89.26±11.22		31.68±4.04		4.05±0.55		18.91±3.47	
	Fair	62.52±12.61		85.14±10.42		28.30±3.50		3.91±0.64		17.50±3.64	
	Poor	45.33±8.33		82.00±17.58		28.33±2.89		2.67±0.58		17.00±1.73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47.88±16.12	.940 (.443)	103.25±17.24	5.091 (.001)	33.38±5.34	1.583 (.182)	3.63±0.92	2.920 (.023)	23.38±2.83	12.265 (<.001)
	Satisfied	55.52±13.20		89.65±8.97		31.21±4.74		3.70±0.80		19.97±2.94	
	Fairly satisfied	56.97±14.44		86.79±10.55		30.16±4.32		3.34±0.85		17.75±3.85	
	Unsatisfied	60.56±16.76		86.44±13.56		29.67±4.69		3.78±0.83		17.22±3.46	
Very unsatisfied	57.67±24.03		79.67±21.55		28.33±4.93		4.33±0.82		12.83±2.71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147)

Variables	Happiness	Job-Seeking Stress	CDMSE*	Self-Esteem
	r (p)	r (p)	r (p)	r (p)
Job-Seeking Stress	-.198 (.016)			
CDMSE*	.327 (< .001)	-.217 (.008)		
Self-Esteem	.334 (< .001)	-.324 (< .001)	.370 (< .001)	
Study Achievement	.029 (.724)	.046 (.576)	.036 (.667)	-.015 (.854)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able 4.**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N=147)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8.679	2.378		3.649	< .001
Major satisfaction*	1.523	0.549	.196	2.786	.006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4~<6 million won)	1.963	0.633	.222	3.101	.002
CDMSE	0.065	0.025	.198	2.617	.010
Subjective health*	-2.543	1.079	-.167	-2.357	.020
Self-Esteem	0.115	0.064	.139	1.801	.074

R<sup>2</sup>=.341, Adjusted R<sup>2</sup>=.335, F=11.777, p<.001, VIF=1.06~1.26, Durbin-Watson=2.164

† Dummy variable; Reference group: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ubjective health: Excellent,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6 Million won;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논 의

본 연구는 취업 스트레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통합적인 영향을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성별, 가구 내 평균 월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업성적, 가정형편,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16]와 학년, 연령, 용돈, 학업성적, 성격, 주관적 건강상태, 외모 만족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10]와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연구마다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가계 월수입, 가정형편, 용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에게도 경제적인 요인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대상자의 외생 변수인 가구의 경제적인 요인을 통제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이러한 변수를 통제된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성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년,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취업

동기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16]와, 성별, 종교, 전공, 경제적 상태,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18]와 유사하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학년, 월 가계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종교, 학업성취도, 가정형편,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16]와 성별, 연령, 학년, 경제상태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27]결과에서처럼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경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가계수입, 가정형편, 경제적 상태가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그들의 환경적인 배경인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경제적 요인, 학업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학년,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공만족도와 전공적응도에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28]와, 부모에 대한 태도, 적성, 학과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29]에서처럼 전공과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공통된 요소로 나타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선택과 학습 및 교과과정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규

명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행복감에서는 가구 내 평균 월수입, 취업영향, 취업고민,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 학년, 경제적 수준, 아버지 학력에서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19]결과와 상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행복감은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의 결합에 의한 대상자의 주관적 반응으로 인구학적인 특성에서는 물질적인 요소의 반응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수준과 학력위주의 우리사회 풍토에서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른 빈부 차이 발생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감의 기본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성인기인 대학생에서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풍요로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취업과 건강상태와 현재의 안정감을 주는 전 요소인 대인관계와 전공만족도이므로 성인기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영향 요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 긍정적인 대인관계 유지 및 증진, 지지그룹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지지에 대한 간호중재 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행복감과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15]에서는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행복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이는 진료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이 더 큼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진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겠다.

행복감의 영향요인으로는 진료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에 불만족하는 경우, 가구 내 평균 월수입은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주관적 건강은 건강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용돈, 관계형성이 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조사된 선행연구[7]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6]에서 행복감에 경제적 상태와 주관적 건강이 동일한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감사성향, 자아존중감, 신

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상태, 긍정적 정서가 행복감을 주는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11]와 한국 성인의 경제적 수준은 행복감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한 연구[17]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결과인 가구 내 평균 월수입인 경제적 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인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조사[12]에서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은 가족지지, 자기만족, 관계지향, 자기조절의 형태로 각 대상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관적 성향에 의해 행복감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하여 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시 그들의 주관적 성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학생은 신체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성인기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과도한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하기보다는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건강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삶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인생을 설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건강은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자신에 대한 효능감, 가치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성인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건강 요인이 행복감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행복감의 영향 요인이었고 이중 전공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30]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건강, 수입, 가족 등의 심리사회적 요소가 행복을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2, 30대에서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소들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관계형성, 가정경제 수준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와 관계형성이 높아 진료결정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5]의 결과와 같이 대학생일수록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행복에 대한 내적 요인을 규명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행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자기성찰, 자기 주도적 수행,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학교 및 학과 분위기 조성 및 지원,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고려한 행복감 증진 간호중재개발이 요



구된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간호대학생이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간호제공자로서의 역할로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지역 간호학과 2곳의 대학생들만을 편의표집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의 대학 2곳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행복감은 가구 내 평균 월수입, 취업영향요인, 취업고민상담,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 가구 내 평균 월수입,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건강상태이었고 대학생의 이들 변수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33.5%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외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하지만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같은 내적인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간호학 고유의 특성과 간호전문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자긍심,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진료결정 자기효능감,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중재 후 행복감의 횡단적 연구와 더불어 간호학의 전공 적응과정동안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의 변화에 대한 종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 REFERENCES

1.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4 OECD better life index: life satisfaction for Korea [Internet]. Paris: OECD; 2014 [cited 2014 September 1]. Available from: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2. Min S, Yu GW, Kim HS. The effect of self leadership training program on hop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Paper presented at: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0 November 16; Seoul, Korea.
3. Ryff C., Keyes C.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5; 69:719-27.
4. Statistics Korea Korean. 2014 the unemployment rate tables among young people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4 [cited 2014 October 1]. Available from: [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2&NUM=79](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2&NUM=79)
5. Park HJ, Jang IS. Original Article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0;16(1):14-23.
6. Cho HC. A study on the stress involved in preparing for employment on college student'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Korean Youth*. 2013;24(1):157-84.
7. Kim BJ. A study of life events influenced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11;25(1):115-35.
8.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170-7.
9. Son YJ, Choi EY, Song YA.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0;18(4):345-51.
10. Jo GY, Park HS.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a-Industrial Technology*. 2011; 12(1):160-9.
11. Jo KH. Perception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 happines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2):178-89.
12. Flaming D.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2001;2:251-8. <http://dx.doi.org/10.1046/j.1466-769X.2000.00066.x>
13. Watson, J. *Nursing: human science and human care. A theory of nursing*. Norwalk, Connecticut: Appleton-Century-Crofts; 1985.
14. Kwon YJ, Park YS, Kim UC.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support, self-efficacy, happi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Education Inquiry*. 2007; 25(2):153-72.
15. Han SJ, Lee YJ, Song KY. Meta-analysis of thesis involved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2008;23(3):13-20.

16. Park HS, Bae YJ, Jung SY.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KPMHN*. 2002;11(4):621-31.
17. Kim MS, Kim HW, Han YS, Lim JY. Explorations on the happy life of Koreans on the bases of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03;22(2):1-33.
18. Yoo KH, Yang JH. Influencing factors in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3):435-42.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3.435>
19. Kim HK, Han SM. The effects of health of home environment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Education Studies*. 2011;17(1): 121-61.
20. Kang YR.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dissertation]. Gyeonggi: Dankook University; 2006.
21. NE Betz, KL Klein, K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96;4(1):47-57.
22. Lea EK, Lee HS.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2002;14(1):109-20.
23. Rosenberg M. *Society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65.
24. Je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Research Institute*. 1974;11(1):107-30.
25. Lyubomirsky L.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99;46(2):137-55.
26. Lim JS. Relationships of a self-enhancement bias,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ld-adul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4.
27. Kang YS, Hwang SK.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7):3301-9.  
<http://dx.doi.org/10.5762/KAIS.2013.14.7.3301>
28. Cho HS.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007;32(2):7-72.
29. Lee HI.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8;22(1):97-107.
30. Margolis R, Myrskylä M. Family, money, and health: regional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ver the life course.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2013;18(2):115-26.  
<http://dx.doi.org/10.1016/j.alcr.2013.01.001>